

나의찬 극장골, 핸드볼 전국대회 우승으로 이끌다

양현준 기자 yhj1001@khu.ac.kr

【국제】핸드볼부가 태백시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대학 핸드볼 통합선수권대회(이하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한국체대를 27:2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전반전에서는 우리학교가 끌려가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연달아 실점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곧바로 김준영(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전반전은 우리학교가 추격하면 한체대가 멀어지는 식의 양상으로 12:13으로 한체대가 리드 한 채 마쳤다.

승패는 후반 막판에 갈렸다. 종료 1분 전까지 26대 25로 앞섰지만, 종

료 17초 전 나온 한국체대의 득점으로 경기는 연장을 바라보게 됐다. 하지만 극적인 장면이 나왔다.

경기 재개 휘슬이 불린 이후, 나의찬(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는 하프드로우(실점 이후 코트 중앙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절차)로 차혜성(스포츠지도학 2021) 선수에게 패스했다. 차혜성 선수는 다시 나의찬 선수에게 패스했고, 이를 받은 나의찬 선수가 수비를 제치고 종료 1초 전 극장골을 넣으며 극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극장골 주인공 나의찬 선수는 “골을 넣은 직후 상대 수비에 밟혀 신발이 벗겨진 상황이었지만 혹여나 상대가 공격할까 맨발로라도 수비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 뽑힌 주



전국대학 핸드볼 통합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리학교 핸드볼부 (사진=체육부 제공)

장 변서준 선수(스포츠지도학 2021)는 “저의 마지막 대학 대회라 후회 없이 경기를 치르려고 했다”며 “전반전이 생각보다 쉽지 않게 흘러가 조금 당황했지만, 우리 팀이

체력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에 후반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우수 선수 선정은 팀원들의 노력과 승리 덕분”이라며 “모

두 다같이 게임을 뛰면서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최근 우리학교 핸드볼부의 기세는 매섭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한국체대전 승리가 곧 대회 우승이라는 진기한 기록을 세 번으로 늘렸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선수권대회와 올해 4월에 열린 대학핸드볼통합리그 우승에 이어 이번에 열린 선수권대회까지 총 3개의 대회에서 한국체대를 만나 승리했다.

연속 우승의 비결은 선수들의 달린 훈련방식에 있었다. 차재우 코치는 “선수들 개개인의 특징에 맞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훈련을 했다”며 “어떤 팀을 만나든 주눅들지 않고 항상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4회 맞는 ‘트로이카’ 3000명 관중 달성 목표

김수현 기자 soo2023@khu.ac.kr

동대문구 3개 대학(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연합 역동전 ‘TROIKA(트로이카)’가 오는 3일부터 9일 동안 열린다.

2019년에 제1회 대회로 막을 올렸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개최되지 않았다. 주최 측은 3000명 관중 달성을 목

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트로이카에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축구, 농구, 테니스, e스포츠와 더불어 야구, 줄다리기, 계주, 탁구 경기도 열린다. 다만 각 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주관하던 학술문화행사 감동제와 공연 행사인 악동제는 올해 개최하지 않는다.

각 종목은 ▲경쟁전 ▲교류전 ▲FESTA로 구분된다. 경쟁전에선 축구, 농구, e스포츠(리그오브레전드,



트로이카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트로이카 사진. (사진=고향대회운영위원회 제공)

FC온라인) 경기가 열리며 선발전을 통해 선출된 각 학교 대표가 경기를 치른다. 교류전은 각 학교의 운동부가 만나 경기하는 종목으로 야구와 테니스 등이 있다. FESTA는 역동

전에 함께 하고 싶은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줄다리기, 계주, 탁구로 구성된다.

고향운영위원회 김동현(미디어학 2021) 위원장은 “많은 학우분들

의 스포츠 교류장을 만들고 싶었다”며 “지난해보다 1.5배에서 2배 이상 많아진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뿌듯하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이번 트로이카에서 누적 오프라인 관중 3000명 돌파를 목표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관중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며 “올해는 많은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역동 페스타를 기획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굿즈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e스포츠 대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축구 결승전 경기에서도 현장 규모를 확충하여 인플루언서를 초청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제73기 신입기자 공개모집

■ 신청기간: 2024년 9월 3일(화) ~ 9월 18일(수) **서류제출 마감**

■ 지원자격

1. 경희대학교 양 캠퍼스 재학생, 휴학생, 복학생 (1학년, 2학년)
2.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자

■ 모집전형

1. 취재기자(0명)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2. 미디어팀 기자(0명)
(영상 제작 및 포토샵이 가능하거나 미디어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자)
3. 사진기자(0명) (사진 포트폴리오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

■ 선발일정

- 1차 서류제출 마감: 9월 18일(수)까지
2차 면접평가: 9월 23일(월)~24일(화) 오후 6시 이후
(신문방송국 대면 면접)
***면접 시간은 응시자의 일정에 따라 지정될 예정입니다.**

■ 지원방법: 대학주보 홈페이지 배너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대학주보: media.khu.ac.kr/khunews)

■ 활동혜택

- 기사 작성 시 원고료 지급
- 해외 취재 기회 제공

